

김석균

1.나의 양심이 정직하지 못해서 겸손치 못해서 상처  
 2.나의 행실이 부끄럽고 추해서 겸말 만 앞 세워서 나 때

받은 고 실 - 족 한 사 람 이 얼 얼 마 일 까 나 갈  
 에 눈 물 흘 린 사 람 이 얼 얼 마 일 까 머 리

이 허물 많고 죄 가 많은 사 람도 없 는 데 나 갈  
 엔 성 경 지 식 가 득 하 나 믿 음 이 없 는 데 입 술

이 교 만 하 고 미 려 한 사 람도 없 는 데 나 보  
 른 온 갖 다 짐 다 하 나 행 함 이 없 는 데

다 남 이 먼저 변 화 되 기 를 원 하 였 고 나 보  
 회 개 하 기 를

다 남 이 먼저 진 실 해 지 길 기 도 하 면 서 나 는  
 새 사 람 되 길

옛 사 람 이 여 전 히 살 아 있 고 못 된 행 실 안 버 렸 으  
 오 래 전 에 눈 물 이 메 말 랐 고 사 람 마 저 식 어 있 으

니 나 는 예 수 믿 고 변 한 것 이 아무 것 도 없 는 사 람